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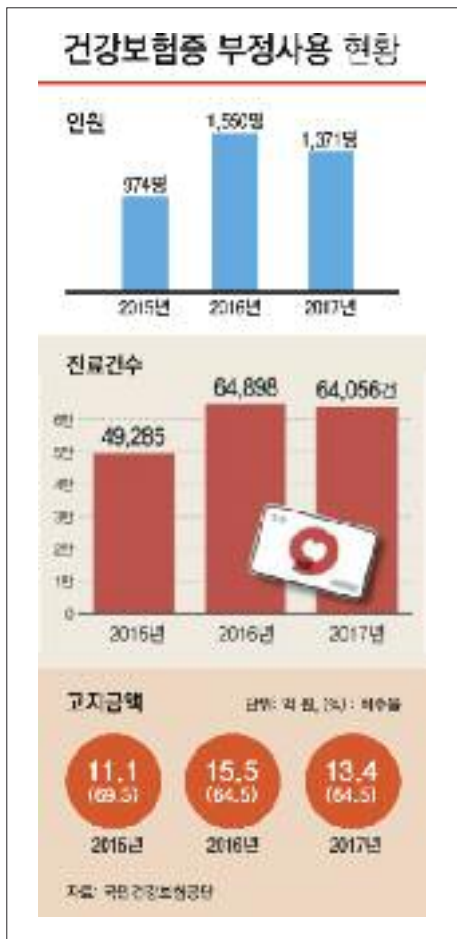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재외동포 한국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



10월 25일 시행, 1년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 내 친지나 친구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한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재외국민 등 외국인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한국시간)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



건강보험공단은 18일(한국시간)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등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 >>2면으로 계속

## 델타, 대한항공 보스톤 취항은 엄청난 성공

델타 보스톤 주요 거점 공항으로 대대적 확장  
터미널 A 21개 게이트 올해 9월부터 모두 독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델타가 보스톤 로건공항에서 최대 취항 항공사를 두고 젯블루에 선전포고를 했다. 올해 4월 인천 직항을 개설한 대한항공과 파트너십을 맺은 델타는 발빠르게 보스톤 항공기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델타는 로건 공항을 허브공항의 하나로 지정하고 보스톤 항공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성장 계획을 세웠다. 델타는 1일 출발하는 비행기 수를 현재 140대에서 20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로건 공항의 1위 항공사는 젯블루다. 젯블루는 취항 5개월만에 로건 공항의 승객 31%를 차지했다. 델타는 19%에 그쳤다. 항공 운항팀원의 수에 있어서도 28%대 18%로 압도적이다. 젯블루는 하루 156대의 비행기를 운항하며 델타는 111대이다. 다만 대한항공 등 외국 파트너 항공사까지 합하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IACE TRAVEL**  
상업시간 연장안내

OPEN 9AM CLOSE 9PM

TOLL FREE 866.619.4223

비수기 출발 인천행 직항항공권 \$1249~

일본 에어텔, 레일패스  
미서부 특가기차투어  
고국방문 패키지  
일본아시아 여행기차투어

NewsStar Real Estate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한국내 친지나 친구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한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재외국민 등 외국인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재외동포 한국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

▶▶1면에 이어서

계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며 확인 의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영주권자)을 말한다.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

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어렵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한인회 체육대회 8월 10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8.15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를 과거 한인회가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장소인 워터타운 소재 이스턴 파크에서 8월 10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체육대회는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주최하고 보스톤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구기종목 경기를 비롯해 가족게임, 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물풍선게임 등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점심이 무료로 제공된다.

체육대회에 대한 문의는 한인회 박찬모 사무총장(213-364-0577)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5년 8월 15일 개최되었던 한미연합 체육대회 및 आयु회 모습

## 2019년 가을학기 가야금/ 고전 무용반 수강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문화위원회는 가을학기 가야금반과 고전 무용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을 학기는 8월 말부터 시작, 10주 동안 로드아일랜드 크랜스턴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진행된다. 정확한 시작일은 아직 미정이다.

가야금 병창반은 오정희 강사가 담당해 강의하며 현재 진행중인 어른반도 가을학기에 계속된다. 강의료는 학기당 \$75이다.

한국 고전 무용반은 윤광옥 문화위원장이 강사를 맡는다. 고전무용에 관심이 있는 4-6학년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무

용반은 강의료와 무용복 전액을 RI Expansion Arts Program (RI-EAP) Grant에서 부담한다.

연락처 : 윤 광 옥 (Angela Sharkey); Tel) 401-525-1830; angela.sharkey1378@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뉴햄프셔주 전역에서 모인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미정부관계자, 한인사회 지도자들 130여명이 작년 7월 27일 금요일 뉴햄프셔주립참전용사묘지에서 행사를 가졌다.

## 뉴햄프셔주 한인회 주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해마다 뉴햄프셔 지역의 큰 뉴스로 다뤄지는 뉴햄프셔 한인회 주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가 7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뉴햄프셔 보스카웬 소재 뉴햄프셔 주립참전용사묘지(NH State Veterans Cemetery)에서 개최한다. 뉴햄프셔 참전용사 행사는 2017년 콩코드 모니터의 1면을 장식했다. 지난 2018년에는 뉴햄프셔 채널 9 WMUR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몇 해 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은 물론 해방 후 한국에서 주둔했던 모든 미군 장병으로 넓혔다. 한인회 측은 참전 용사뿐만 아

니라 많은 한인들도 함께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행사는 주립참전용사묘지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진행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햄프셔 한인회는 행사 후 식식과 기념품을 준비해 참전용사와 한인 동포들에게 제공한다. 조 회장은 “한국전 당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참전용사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살아계신 분들도 이제 80대 후반 90대 초반이 되었다. 이 분들에게 보은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국전참전용사 보은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며 “가능하면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노병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

리는 기회를 갖자” 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가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므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이를 감안해 미리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선우고문 (603-767-1356)에게 하면 된다. 일시: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3:30 장소: New Hampshire State Veterans Cemetery 110 Daniel Webster Highway, Boscawen, NH 03303 예약은 필요치 않으며, 행사 후에는 저녁식사가 제공됨 bostonkorean@hotmail.com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 협회 피크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는 브라이튼 소재 솔저스필드 찰스강변에 위치한 크리스찬허터파크(Christian Herter Park)에서 8월 4일 일요일 오후 12시 여름 피크닉을 갖는다. 이번 피크닉에는 다양한 분야 각양각색의 한인 간호사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병원 교육가, NP, 임상 간호사, 간호대 교수, 미국 간호사 취업을 준비생, 석박사학생 등 다양한 선배 동료 간호사들이 참여하

기 때문에 무료 직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야외 피크닉의 참가비는 개인이나 가족 모두 \$20이다. 비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참가도 환영한다. 식사, 음료 등도 마련되어 있다. 피크닉 문의 : info@korean-nurses.org, 웹사이트 : www.korean-nurses.org bostonkorean@hotmail.com



사진은 2013년도 피크닉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참가자들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8/5 - 8/23	Mon/Wed/Fri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날것의 언어로 이민의 일상을 노래”

## 유희주 시인 시집 <소란이 환하다> 발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 시인의 재능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서부에 거주하는 시인 유희주씨(54)가 한국어서 발간한 시집 “소란이 환하다” 한국어서 환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인의 세번째 시집이다.

유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의 순간들이며 일상을 특유의 직설적인 방식과 날것의 언어로 읊는다. 또한 디아스포라 문학인으로서 국가적인 경계를

넘는 연대와 자유를 꿈꾸고 있다.” 고 밝혔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의 시 (베트남 여자)를 읽으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 여자 바니는/ 화장도 곱게 하고 치장도 예쁘게 하고 있지만 늘 화난 얼굴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각국의 사람들끼리/ 가장 쉬운 단어, 앵그리 우먼이라고 부른다” 며 유씨는 미국 사회 스테레오타이핑의 전형적인 모습을 언어로 그림처럼 찍어낸다.

“꽃소리가 예쁘다는 칭찬 한마디에/ 모든 경계를 다 풀고 낭창낭창해진 바니가 라커룸에서 드린/ 그기도가 무엇이든/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시를 읽고 나면 이민자의 아픔을 아는 입장에서 코끝이 찡해진다.

유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적한 매사추세츠 서부를 “거대한 수도원 같은 곳” 으로 묘사했다. “삶 자체가 수행이 아닐 수 없다” 고 말한다. 감성의 거품을 거르고 일상의 언어를 챙겼다. 그래서 시인은 “표현에 갇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고 주문한다.

해설을 맡은 김응교 시인은 “디아



시인의 재능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서부에 거주하는 시인 유희주씨(54)가 한국어서 발간한 시집 “소란이 환하다” 한국어서 환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포라 경계인(境界人) 작가의 작품에는 자신이 상실한 순간들, 지금 체험하고 있는 차별이나 모멸의 일상을 전하고 싶은 무의식이 가득하다.” 고 말하고 “행과 행 사이에, 연과 연 사이에 상실과 그리움이 상처로 남겨져 있지만, 시인은 그것을 어렵게 표현하지 않는다.” 고 지적한다.

유씨는 37세에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도미 2007년 평론으로 미주 중앙신문문학상을 받았고, 2015년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떨어져 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와 『엄마의 연애』가, 산문집 『기억이 풍기는 봄밤』이 있다.

지금은 비영리단체 ‘매사추세츠 민간 한국 문화원’을 운영하며 한인 도서관, 한국 학교, 한국 문학 번역 koreanlit.com 사업을 등에 메고 있다. 그림도 그린다. 출판기념회 때 그림 전시를 20점 했는데 모두 팔렸고 7점이 추가 주문 들어왔다고

editor@bostonkorea.com



##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 7면 <로렌스지역 한인업체들 가스폭발 후유증 여전> 기사에서 이가그릴 이재봉 사장의 이름을 이재봉 사장으 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저희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본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것 느나는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는 문장에서 일부 독자들이 “고 이재봉 사장”으로 오해하도록 보여진 것도 사과드립니다. 실제적 띄어쓰기의 잘못은 없었지만 본사가 사용하는 폰트 (신문제비)의 특질상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가그릴은 비교적 다른 한인업체에 비해 피해가 적었을 뿐 여전히 큰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 정관장

**Event 1**

2+1

화애락 본 구입시  
**15포 추가증정**

**화애락진은 제외**

**BEST DEAL**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BEST DEAL**

\$80 상당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은 다음날 관해에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다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서울대동창회 산우회 클럽워크 산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동창회 산우회는 8월 17일(토)에 로드아일랜드 뉴포트(Newport)에 위치한 클럽워크(Cliff Walk)를 같이 걷는 행사를 갖는다.

클럽워크는 내셔널히스토리디스트릭트인 3.5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는 바닷가 절벽길로 풍치가 아름답고 잘 꾸여져 있다.

산우회는 걷기 쉬운 부분인 뉴포트 맨션 뒤쪽 부분 2마일 정도를 돌아보고 트롤리를 타고 시내로 돌아와 워터프론트 레스토랑(Waterfront Restaurant)에서 해산물 점심(선택가능)을 먹을 계획이다. 점심 후 오션 드라이브로 반대쪽 해안가와 브렌튼 포인트 스테이트 파크에 들렀다 귀가할 계획이다.

트롤리를 타기 위해서는 1불짜리로 4불을 준비해야 한다. 주차는 뉴포트 비지터 인포센터에 가능하며 트롤리

영수증을 보여주면 일반적으로 \$25인 주차료 대신 2불에 주차가 가능하다.

17일 토요일 아침 9시 블루힐스 호튼스 폰드 메인주차장(21 Hillside St, Milton, MA 02186)에 모여 카풀로 여행한다. 직접 운전해 방문하는 경우 뉴포트비지터인포센터로 10시 15분까지 도착하면된다. 만남은 인포메이션센터 안에서 갖는다.

산우회 행사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산우회 김정선 회장 (jkim@systemic.com)에게 미리 예약해야 한다. 준비물로는 등산화, 모자, 선스크린, 방풍의, 배낭에 물, 간식, 비상약품, 셀폰, 쓰레기봉지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는 산우회 시내산 김정선(617-780-7205)회장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주보건부 올시즌 첫 동부말뇌염 모기 발견

동부말 뇌염은 치명적인 중병 모기 퇴치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보건부는 올시즌 들어 처음으로 동부말뇌염(EEE, eastern equine encephalitis)모기가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동부말뇌염 모기는 7월 15일 브리스톨 카운티에 속하는 이스튼과 뉴베드포드에서 수집된 샘플에서 발견된 2마리다. 아직까지는 감염된 환자나 감염된 동물은 보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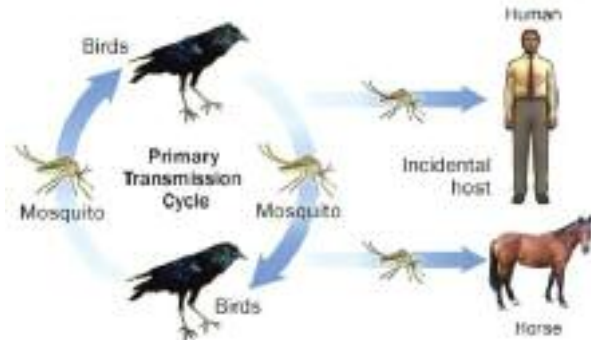
캐서린 브라운 주보건부 감염의학과 의는 “동부말뇌염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수년전”이라고 말하고 “이 시기에 첫 동부말뇌염 모기가 발견되는 것은 정상이며 향후 2-3주 사이에 모기발견 수치를 통해 올시즌이 어떤 양상을 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EEE는 드물지만 전 연령대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아주 심각한 증병이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감염된 동부말뇌염 모기가 물어 주로 사람에게 옮겨온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케이스는 2013년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시즌 막판에 우스터 카운티에서 한마리의 터키와 한마리의 말에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캐서린 브라운 박사는 “이제 매사추세츠에 동부말뇌염과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모두 발견됐다” 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 모든 테슬라차 올해 안 자율주행차로 전환 계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차의 성능 업그레이드  
테슬라 전기차 소유하면 내년엔 자율주행차(Auto Car) 손안에  
다른 무인차와 달리 신중한 주행 점검 없어, 안전과 법규문제



테슬라가 빠르면 올해 말 소프트웨어 자동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각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전부를 자율 주행이 가능한 로보카(robot-cars)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테슬라가 빠르면 올해 말 소프트웨어 자동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각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전부를 자율 주행이 가능한 로보카(robot-cars)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대중을 상대로 상용화하는 첫번째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가 될 전망이다.

서만 실험하는 등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테슬라는 전혀 조심스러운 면이 없다. 자율 주행자의 경우,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이 업계 표준에 따라 대부분이 스스로 규제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밝혔다.

테슬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제대로 된 법규도 없이 자율주행 실험기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들의 손에 무인자동차를 쥐어주는 것이어서 업계 관계자들과 규제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주요 안전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철저한 검증없이 도로위에서 주행하게 될 경우 수많은 충돌과 소송,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전면 자율주행 기능은 여전히 무인자동차 업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경쟁사 및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언제나 지켜봐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선 업데이트가 모두 끝나는 순간 테슬라 자동차들은 현재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하는 것처럼 로컬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들은 스스로 교통신호와 정지 표지판을 읽는 것은 물론 급회전도 가능하다. 정체된 구간에서 가다 멈춤도 반복할 수 있고 다른 장애물도 피한다. 이는 길고 대부분 관계 뻘은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정밀성을 요한다

테슬라는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 실제 운전상황에서 거뒀던 더 나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거뒀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켰다. 테슬라 운전자들의 모든 운행정보를 수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같은 자율주행을 빛 추적장치, 또는 레이저를 통해 환경을 파악하는 복잡한 센서인 리다(lidar) 같은 장치 없이 실현해 낸다. 심지어 리다를 장착한 제조사들은 제한된 공공도로에

테슬라는 전기차를 10년전에 처음

으로 상용화시켰다. 모든 경쟁자들보다 앞서갔으며 이젠 한번 충전에 370마일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차를 불러올 수도 있고 차에 타지 않고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4월 투자자들에게 “내년 중반까지 우리는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바뀔 백만 테슬라 차를 도로 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차들은 자신의 주인을 찾아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며 차를 주차까지 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 자율주행차들은 운전자가 잠들어도 될 만큼 아무런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신뢰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테슬라 차들에게 업데이트 한 후 3개월간 기록을 추적한 결과, 사고가 2백 87만마일 중에 한 차 비율로 나타났다.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경우 43만 6천마일 중에 한대의 사고가 발생한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사고율이 적은 고속도로로서의 기록이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한편 구글 알파벳 소유의 웨이모(Waymo), 리프트의 앵티브(Aptiv), GM의 크루즈(Cruise) 등의 경쟁사들도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택시차를 각각 시험주행 중에 있다. 이들은 아주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방법으로 무인자동차를 실험하고 있다. 한 예로 우버는 자율주행 택시가 행인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던 경우 수개월간 운행을

중단했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이 무인자동차 경쟁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무인자동차에서 거의 핵심적인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아주 경량화된 시스템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해 주의를 경악케 하고 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의 조합으로 인간의 시선과 유사한 자율차의 시선을 규제한다. 비싼 리다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도 없었다. 대신 운전대의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손이 운전대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같은 무인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테슬라와 다른 무인자동차의 가격차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성능은 추후 비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델타항공은 터미널 A 모든 게이트를 델타로만 독점하게 된다. 로건공항의 점유율 1위 잭블루항공을 정조준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 델타, 대한항공 보스턴 취항은 엄청난 성공

▶▶1면에 이어서

면 140대이다.

젯블루는 올해 말까지 175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스턴을 6대 집중 도시 즉 허브 도시로 삼고 있다. 젯 블루는 내년 정도 하루 200대의 운항대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델타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제치고 로건 공항 넘버 2의 자리에 올라섰다. 델타의 글렌 호엔스타인 사장은 지난해 분기별 수익률이 25%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델타는 지난 6월 보스턴을 허브도시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당 운항대수 200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호엔스타인 사장을 밝혔다. 따라서 더 많은 항공기들이 보스턴 공항을 이용하게 되고 더 많은 직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는 델타의 1600여명의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의미다.

델타는 특히 직접 투자한 국제 항공 벤처를 강조하고 있다. 호엔스타인 사장은 최근 서울과 직항노선 개설한 대

델타, 보스턴을 허브도시로 간주 매일 출발하는 비행기 수를 현재 140대에서 200대까지 상향 계획 터미널 A의 21개 게이트, 오는 9월부터 모두 독점

보스턴의 강력한 경제활동이 이유

한항공을 예로 들며 대한항공 취항이 엄청난 성공이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델타는 현재 사우스웨스트항공과 공유하고 있는 터미널 A의 21개 게이트를 오는 9월부터 모두 독점하며 시카고 오페어, 뉴욕, 워싱턴DC 리전 공항 등으로 노선을 확장한다. 단 1개 게이트를 웨스트제트가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델타의 조인트 벤처다.

델타가 이처럼 보스턴에 전력투구를 하는 이유는 보스턴의 강력한 경제력에 근거한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혁신 경제형태와 낮은 실업률 그리고 다운타운과의 근접성 등이 매력적이다. 델타는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보스턴 공항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려왔다. 대한항공과 델타의 이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외과의 동시 복수 수술 규정 확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료등록원(Massachusetts Board of Registration in Medicine)은 한 명의 외과 의사가 한꺼번에 두 환자를 집도할 경우 반드시 수술실의 출입을 서로 기록하도록 했다. 그동안 매사추세츠주 엘리트병원 의사들은 동시에 복수의 환자를 수술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매스 의료등록원은 만장일치로 의사의 수술실 출퇴실 문서기록화 및 수술에 참가하는 보조 의사의 이름을 환자에게 고지,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새로 바뀐 규정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매스의료등록원은 3년전 예비 승인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 승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었다.

70개 주의 의사 등 규제기구인 주 의료등록원 연맹의 대변인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승인한 것은 매사추세츠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 의사가 복수의 환자를 동시에

집도하는 것은 지난 2016년 보스톤 글로브가 일련의 탐사 기사를 보도하며 공론화됐었다. 당시 명문병원의 유명 의사들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복수의 환자들을 집도하는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었다.

신규 의료법에 따르면 외과의는 진단, 치료, 수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누가 집도의이며 외과 레지던트들, 펠로우, 참관인, 간호사 등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수술중에는 어느 순간에도 집도의가 수술실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나가는 시간과 누가 집도를 하게 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명문 대학병원들은 수술을 몇분 정도 겹치게 잡고 수술이 끝나면 봉합은 레지던트들에게 맡기고 외과수술의사가 다른 환자에게 먼저 이동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MGH의 경우 두환자의 수술이 수 시간 동안 겹치도록 했었다

hsb@bostonkorea.com



MGH의 경우 두환자의 수술이 수 시간 동안 겹치도록 했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통째로 대여 가능한 뉴잉글랜드 섬 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간직한 무인도는 바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온전한 쉼을 준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혹은 작은 그룹의 리트릿을 구상 중이라면 통째로 대여 가능한 뉴잉글랜드의 섬 5 곳을 눈여겨보자. 다음의 뉴잉글랜드 섬 5곳은 에어비엔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코네티컷 로렐 섬

5에이커의 작은 섬 로렐은 카누를 타거나 수영하기 좋은 호수에 있다. 19개의 침실과 7개의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어 작은 인원의 리트릿에 적합하다. 하루 250불 이상부터 시작한다.

[https://www.airbnb.co.kr/rooms/21060?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https://www.airbnb.co.kr/rooms/21060?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



## 메인 주 노스 트윈 레이크

메인 주의 최고봉인 카타딘 산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작은 섬으로 메인 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노스 트윈 레이크에 위치해있다. 크고 깨끗한 호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작은 오두막집 외에 섬에 아무런 건물이 없지만 인터넷 와이파이와 연결과 핸드폰 통화에는 어려움이 없다. 오두막 내부에 두 개의 침실이 있고 화장실은 외부에 있다.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150불부터 시작한다.

[https://www.airbnb.co.kr/rooms/17568211?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https://www.airbnb.co.kr/rooms/17568211?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



## 메인 주 몬모스

숲이 울창한 14에이커의 섬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편리한 요리시설, 해먹과 캠프파이어 등, 휴양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다. 로프스윙이나 카약, 카누와 같은 레저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한 개의 침실에 두 개의 침대가 있어 4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하루 150불부터 시작한다.

[https://www.airbnb.co.kr/rooms/28227769?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https://www.airbnb.co.kr/rooms/28227769?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



<메인 주 몬모스> 숲이 울창한 14에이커의 섬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편리한 요리시설, 해먹과 캠프파이어 등, 휴양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다

## 뉴햄프셔 위니피사우키

위니피사우키 호수의 유일한 개발되지 않은 섬으로 개인 보트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 숙박 시설을 위한 건물은 없으며 캠핑장만 구비되어 있다. 수영과 카누 등 호수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멋진 경관과 조용한 개인 시간은 덤이다. 16명 이상 이용 가능하며 하루에 475불부터 시작한다.

[https://www.airbnb.co.kr/rooms/411969?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https://www.airbnb.co.kr/rooms/411969?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

## 메인 브레멘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섬으로 통나무로 된 작은 집에 성당식 천장과 벽난로가 구비되어 있다. 3개의 침실과 한 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6명까지 숙박할 수 있다. 하루 150불

부터 시작한다.

[https://www.airbnb.co.kr/rooms/2487596?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https://www.airbnb.co.kr/rooms/2487596?s=67&shared_item_type=1&virality_entry_point=1&sharer_id=51629930)



sun@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24<sup>99</sup>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하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b>Plus 상품</b> KBS, MBC, SBS, EBS, YOUTUBE	<b>Premium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틀/총편, YOUTUBE	<b>VIP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틀/총편, 영화/성인, YOUTUBE
\$24 <sup>99</sup>	\$34 <sup>99</sup>	\$39 <sup>99</sup>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13개 Live방송중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영어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벵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 폭우 뒤 올들어 가장 무더운 폭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기상청은 이번주 열대성 폭풍 우 베리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습성 폭우 이후 올들어 최대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버크셔 카운티 동부 전역에 열대성 폭풍 베리(Barry) 주의보를 내렸다. 베리는 허리케인급이었지만 힘이 약화되어 열대성 폭풍으로 변해 매사추세츠를 강타하게 된다. 바다로 빠져나가는

뉴잉글랜드 남부 지역은 17일 오후 또는 밤부터 소나기 또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18일 목요일에도 시간당 1-2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곳곳이 침수 또는 단전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성 폭풍 베리의 영향권에서 벗



어나면서 매사추세츠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해 20일 토요일에는 90도 후반대를 기록하며 실제 피부로 느끼는 더위는 108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 이번 더위에서 조금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곳은 케이프 코드와 주변 섬들이 유일하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엔 이민단속 없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일요일부터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할 것이라는 발표와 달리 매사추세츠에서는 이민단속은 없었으며 뉴욕 등 일부에서는 이민단속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민 단속과 관련해 지난 주말 보스톤에서는 단속반대집회가 열렸으며 정치인들은 이민단속에 대비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처 방안과 권리에 대해 알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그러나 미 언론에 따르면 사실상 “대대적” 인 이민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단속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수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주말을 보내야만 했다.



센디에이고 이민단속국의 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팀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20여명의 범외국인의 불법이민자를 체포했다. (ICE) VII July 7-11, 2019.

미 이민국은 미국내 10개의 대도시에서 2천여명의 이민자들을 단속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보스톤은 10개 도시 목록에는 빠졌지만 보스톤 시

는 이민사회에 각별히 대비할 것으로 경고하고 이민사회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hsb@bostonkorea.com



지난 주말 상어의 출현으로 3곳의 케이프코드 해변이 수영을 금지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24시간동안 무려 10마리의 백상어가 해변 인근에서 발견됐다

## 케이프코드, 백상어 24시간내 무려 10마리나 출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주말 상어의 출현으로 3곳의 케이프코드 해변이 수영을 금지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24시간 동안 무려 10마리의 백상어가 해변 인근에서 발견됐다.

상어 보존협회의 삭티비티(Sharktivity app)에 따르면 15일 월요일엔 4마리 화요일에는 6마리가 출현했다. 대부분의 상어는 케이프코드 대서양 쪽에서 출현했으며 나머지 4마리는 케이프코드 만쪽에 나타났다.

상어로 인해 지난 토요일 폐쇄된 해변은 트루로(Truro)의 메도우 비치와, 코스트가드 비치 그리고 올리언즈(Orleans)의 너셋 비치였다. 너셋 비치의 경우, 지난달 상어공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퍼스트에이드 장비를 보급 받았다

2018년의 경우 두 번 해변에서

수영 또는 보드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을 상어가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9월에는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는 80여년 만에 첫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상어의 출몰이 잦고 상어의 공격도 증가하면서 케이프코드 관계자들은 현재 상어를 해변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우즈홀그룹은 현재 소나뷰이, 드론, 그물망 등의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프코드의 한 단체는 이처럼 상어의 출몰이 잦게 된 이유 상어의 주요 먹이인 실(seal)이 폭증했기 때문이라며 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 트럼프의 내수용 인종차별 발언에 서방도 불쾌감

## 영국·벨기에·캐나다 정치권 받아들일 수 없어 아랑곳 안하는 트럼프, '진보 4인방'에 계속 맹폭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민자 정 출신 진보성향 여성 하원의원 4명을 겨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발언이 서방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백인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과 벨기에, 캐나다 등 서방 정치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대변인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의 총리 후보들도 한 마디씩 거들었다. 보수당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완전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논평했으며,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텐전 제1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자국 선출직 정치인에게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한 발언은 옳지 않은 것"이라면서 "(

이런 발언에) 외교적 예의를 차린답시고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지적하는 일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총리를 지냈던 기 베르호프스 타트 유럽의회 의원은 "트럼프의 인종차별은 역겹다"면서 "그를 비난하지 않는 유럽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독일 주요 언론에서도 사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지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뭇난 감성에 의존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전략"이라며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 그 내용에 대한 논쟁은 시간낭비"라고 적었다.

미국의 이웃나라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 또한 전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다양성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며, 캐나다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우리 다양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그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진보적인 여성 하원의원들'을 지칭해 "완전히 재앙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나라에서 온 이들"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의 표적이 된 여성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의 초선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뉴욕),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라시다 탈리브(미시간), 아야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등 4인방이다.

이들은 모두 이민자 가정 출신이며 당내에서 진보파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푸에르토리코계, 탈리브 의원은 팔레스타인계, 프레슬리 의원은 아프리카계 흑인이다. 오마르 의원은 어릴 적 소말리아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한 최초의 무슬림 의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인데다 가장 부패하고 미성숙한 나라에서 왔다"면서 "이런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인 미국 사람들에게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살벌하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부서지고 범죄가 들끓는 곳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가"라며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니콜라 스텐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된 미국 하원 진보 4인방. 왼쪽부터 라시다 탈리브, 일한 오마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아야나 프레슬리 의원

아랑곳하지 않고 하원의 '진보 4인방'을 계속 맹폭하고 있다. pasta@news1.kr

**www.ksneusa.org (1975-2020 개교 45주년)**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서 \***  
 NE지역 최대 규모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늘 최선을 다해 2세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을학기 일정: 2019.9.21 - 2020.1.25

- \*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07일(토) 오전 8시 40분(강당)
-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중언어 과정(6) 성인반(2) 특별교육(16)
- ▶ 병아리(9월에 2.5세 아동) 기초1(해님 & 달님반), 분반(세종 1)→선착순 등록
- ◆ 학교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 등록기간: 2019년 7월 31일(재학생) · 8월 31일까지 (신입생)
-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
- (1)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음악교육(1-3반), 작문교육(1-3반)·서예반·한국무용·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교육 및 기타
- (2)오후반: 12:45pm-1:45pm: 미술반·발레·태권도·사물놀이·서예반
-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 (1) 오전: \$340/1명 \*\$620/2 \*\$770/3 (2) 오후반: \$130/1 (3) 병아리반:\$180
- (2) 성인반 등록 혜택: 자녀가 등록한 부모인 경우 : 50% 할인
- (3) 자녀 2인 이상 등록하는 가정은 등록금의 3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작성해 주십시오.
-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1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 등록 문의 & 교사지원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http://www.ksneusa.org)
- ◆ 연락처: 남 일 교장: (508) 523-5389(C), (508) 842-1551(Fax)
- ◆ Email: [koreanschool.ne@gmail.com](mailto:koreanschool.ne@gmail.com)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함께 수고하셨 교사들 오십시오 ◆

2세들의 한글·한국역사·문화교육·음악·미술교육 등 2세 교육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교사/보조교사로 2세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로 알려주십시오.

- 모시는 부문: 유아교육·한글·문화·역사 교육 등 2세 교육 전 부문
- 교사 자녀 장학금 및 기타 교사회 각종 지원

◀ 등록부(Registration form) ▶

(2019 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록)

\*한글이름:(1) \_\_\_\_\_ (2) \_\_\_\_\_ (3) \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9년 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진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1): \_\_\_\_\_ Cell(2): \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한글실력(Korean Level)·자세히 기록▶

★ 말하기(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40/1, \$620/2, \$770/3명 (병아리반: \$180)

오후반 수업료 \$ \_\_\_\_\_ (지원: \_\_\_\_\_ 반) \$130/1인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재능기부와 후원(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서 후원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9학년도 봄학기 신입생/편입생 소집일(오리엔테이션 & 반편성) : 9월 07일(토) 오전 8시 40분 → 강당 ★

“건강한 밥상이 왔습니다.”

시골 밥상이 생각나는  
유기농 콩으로 직접 만든 순두부

617.208.8133  
160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ORGANIC WE COOK NON-GMO

KIM'S TOFU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걱정만 준비하는 상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ichael.lee@fairwaymc.com  
mtgwithmike@gmail.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Quincy, MA 02169

# 미 하원, 트럼프 인종차별 발언 규탄결의안 채택

## 공화 지도부 '표 단속' 불구 4명 찬성표 던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6일 하원에서 채택됐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이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40표, 반대 187표로 가결 처리했다.

집권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 투표를 주문했으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프레드업튼(미시건)·윌 허드(텍사스)·수전 브룩스(인디애나) 의원 등 모두 4명의 이탈자가 나왔다.

최근 공화당을 나와 무소속이 된 저스틴 애머시(미시건) 의원 역시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를

통해 이민자 혈통의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을 겨냥, "완전히 재앙적인 정부가 들어선 나라에서 온 이들"이라고 지칭해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윗에서 해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뉴욕),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라시다 탈리브(미시건), 아야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념에 관한 것"이라고 두둔했고,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부대표(루이지애나)는 트럼프 대통령 규탄결의안에 대해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모두가 진정하고 이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우린 극좌파들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린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당이고 (인종이 아닌) 개인의 내면을 믿는다"며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주문했다.

AP통신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견고한 보수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꽤 당혹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ypark@news1.kr



미국 하원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 인종차별 트윗- 공화당 지지율은 높였네

##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트럼프에 찬성" 72%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 발언 이후 오히려 상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지난 15~16일 미 전역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7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주당 여성 의원 4명을 겨냥해 "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부서지고 범죄가 들끓는 곳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인종적 공격을 감행한 이후 이뤄졌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p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무소속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에서

30%로 대폭 줄었다.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민주당 내에선 트럼프의 트윗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지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시간대학 빈센트 허칭스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당 지지자와 일부 무소속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인종적 편협함을 분명히 읽어냈지만, 공화당원들은 다른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칭스 교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어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다. 이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면 그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 의원들을 비판하고, 공화당이 반대하는 집단과 겨룸으로써 공화당 지지자들이 정확히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ngela0204@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 테슬라, 보급형 모델3 가격 인하 결정

## '모델S·X'는 최저 사양 판매 중단으로 사실상 인상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올 2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보급형 차종인 '모델3'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대신 고급형인 경우 최저 사양의 트림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15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글로벌 라인업을 표준화하고 모델별 트림 패키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의 이번 가격 조정으로 모델3의 기본 트림 '스탠더드 레인지' 판매 가격은 3만8990달러(약 4594만원)로 낮아졌다.

반면 준대형 세단 모델S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은 '스탠더드 레인지'를 없애고 상위 트림인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만을 팔기로 해 소비자



지난 3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 테슬라 코리아 부스에 테슬라 모델 X가 전시돼 있다

입장에선 구매가격이 높아졌다. '롱 레인지' 기준으로 모델S의 판매가는 7만 9990달러, 모델X는 8만4990달러다.

이에 앞서 테슬라는 모델S·X·3 등 3개 차종의 올 2분기 배송량이 전분기 대비 51% 늘어난 9만52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80%가 현재 테슬라가 주력 판매차량으로 삼고 있는 모

델3다. 테슬라는 "기존 주문량이 밀린 가운데 3분기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차량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테슬라는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상하이)에 모델3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angela0204@news1.kr

# EU, 아마존 고강도 조사 착수 제휴판매 정보 오용 의혹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서드파티 판매 정보를 오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17일 아마존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가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마존의 사업 관행, 그리고 시장 이자 소매업체라는 이중적 역할이 EU의 경쟁 규칙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의 핵심은 세계 최대 온라인 소

매점인 아마존이 제공하는 제휴 판매 서비스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상의 활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고 말하고 있다.

EU 당국은 조사를 통해 'IT 공룡' 기업들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데이터까지 감시 권한을 확대한다고 통신을 설명했다. 당국은 성명에서 예비조사 결과 "(아마존은) 시장 판매자, 그들이 판매한 제품, 시장 거래 등 경쟁적인 민감한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FP는 이번 공식 조사가 구글과 페

이스북,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IT)의 지배력을 축소하려는 EU 캠페인에 새로운 장을 연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 마감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는 10월31일 종료되는 베스타거 위원회 미국 IT 기업 조사의 최종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타거 위원회의 5년 임기 동안 EU 당국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플과 페이스북을 경쟁법이나 세금, 데이터 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해 왔다.

sy@news1.kr



# 넷플릭스쇼크, 미 가입자 8년만에 첫 감소...주가 급락

## 미 가입자수 13만명 줄어 해외포함 가입자도 목표 절반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17일 깜짝 놀랄 만한 실적 발표를 했다.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였을 뿐 아니라 미국 가입자 수가 순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 2011년 이후 8년 만에 하향 곡선을 그렸다. 실적 쇼크에 주가도 약 12%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2019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4~6월 넷플릭스의 미국 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는 1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283만명이 증가해 전체 유료 가입자 수는 270만명 늘어났다. 그러나 원래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다. 넷플릭스는 애초 국내외에서 48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넷플릭스의 미국 내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주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예상치가 빛나갔다"면서도 "하지만 가격을 인상한 지역에서 그 차이가 더 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발표된 콘텐츠가 기대만큼 가입자를 끌어모으진 못했다며 3분기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이날 4일 공개한 기묘한 이야기(Strange Things) 시즌3를 통해 약 700만명 규모 유료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입자 1억 5100만명(무료가입자 포함 1억 58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둘러싼 전망은 좋지 않다. 디즈니는 오는 11월 '디즈니+'란 이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애플, AT&T, 컴캐스트 등 업체도 별도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wonjun44@news.kr

# FOR SALE

**FULL-PLANT DRY CLEANING STORE**  
(NO WHOLESALE / DROP-OFF)

**YEARLY INCOME : \$500,000+**

**CALL:**

**WORK: 781.233.0522**

**CELL: 781.558.6457**

마음대로 골라본다 \$24<sup>99</sup>

<p><b>Plus 상품</b> KBS, MBC, SBS, EBS, YOUTUBE <b>\$24<sup>99</sup></b></p>	<p><b>Premium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동원, YOUTUBE <b>\$34<sup>99</sup></b></p>	<p><b>VP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동원, 영화/상인, YOUTUBE <b>\$39<sup>99</sup></b></p>
--	---	---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대통령-5당대표, 일 경제보복 즉시 철회 한목소리 촉구

## 3시간 靑 회동서 열띤 논의 끝에 공동발표문 채택 심상정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 따라 재검토"

(서울=뉴스1) 진성훈, 최은지,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3시간 가량의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날 오후 4시1분부터 오후 6시59분까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가졌다. 당초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논의가 이어졌다.

회동이 끝난 직후 청와대 및 5당 대변인들은 춘추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며 모두 4개 항으로 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

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여야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차례로 낭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시종일관 한일 관계에 대해

서, 무역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의견에 대한 의견이 또 제시되는 등 계속 논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당 대표들이 제시한 특사 파견이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특사나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양국간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대한 언급하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간 합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즉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었다"고 말했다.

고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가장 기본'이란 말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결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여야당 대표들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모여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 해결 노력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미래 지향적인 한일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틀외교를 제안한 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대표들이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감정에 의존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반일감정은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각 당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았으나 추경 처리에 대한 구체적 합의까지 이르는 못해 발표문에 명시하지 못했다고 고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문에 담긴 비상협력기구에 대해선 "민관비상대응체제가 기업과 정부라면,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대변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필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게 모였느냐는 질문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동발표문 첫번째에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문구가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은 이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지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민한 사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truth@news1.kr](mailto:truth@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Chelmsford Beauty Academy

로웰에서 5분, 로렌스에서 15분, 벌링턴에서 10분, 앤도버에서 10분 거리

- 경험있는 교사진
- 90% 주보드 시험 통과후 바로 취업
- 풀타임 및 파트타임
- 매달 속눈썹 연장, 속눈썹 리프트, 눈썹 문신 훈련 클래스



## 뷰티 아카데미 수업 내용 및 시간

### 에스테틱스: 600시간

페이셜, 왁싱,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등 포함

### 매뉴큐어리스트 : 100시간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크릴릭 젤, 디핑 파우더 등 포함



60 Chelmsford st #2, Chelmsford MA 01824  
978.250.4488 978.987.3766

특스베리 소재 성업중인 네일살롱에서 네일 테크니션 구인중  
주급 \$800-\$1000  
978.967.6695, 978.987.3766

### 2개 대형 네일살롱 세일중

12개 스파 페디큐어, 10개 매니큐어 테이블

2 페이셜+ 왁싱 룸, 월마트가 있는 대형 플라자 내(가격 16만불 이상)



##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 한일 무역분쟁발, 글로벌 경제 불안 가중...승자는 없어

"관련업체들 간 신뢰를 복구하기란 매우 힘들 것"  
 中 IT 업체엔 호재?... "日의 공급 대체할 수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현재 반도체 수출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분쟁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DBS그룹리서치의 타이무르 바이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간) CNBC '스퀴크 박스'에 출연해 "미국이 주요 교역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일어난 상황은 전 세계 경제 심리에 불안감을 가중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국 기업들은 수년 동안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는데 관련

업체들 사이의 신뢰가 깨졌을 때 이를 다시 복구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패배-패배(lose-lose)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NBC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최대 수출국이다. 양국 간 무역 분쟁은 세계 IT 산업에 악재가 될 수 있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달된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트로이스 탠가론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무역 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

산을 줄일 경우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중국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CN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중국 IT 업체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상황에서 한일 간 무역 분쟁은 중국 기업들이 비좁고 들어갈 공간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들(중국 IT 업체들)이 아직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처럼 앞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들이 공급을 대체할 기회를 잡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을 대신해 한국 IT 업체들에게 공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중국이 이러한 점을 따라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바이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한일 무역분쟁의) 수혜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비록 중국이라 하더라도 공급망을 재설정하고 쉽게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yellowapollo@news1.kr

## 일 반도체 전문가, 수출규제 일본정부 스스로 무덤판다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장 "전세계의 분노 직면"  
 한국의 대체재 확보 및 국산화 노력... "일본 기업에 피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일본에서 반도체 기업 엔지니어와 대학교수로 30여년간 활동해온 반도체 분야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Takashi Yunogami) 미세가공연구소(微細加工研究所) 소장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한 삼성 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산 소재의 비중을 낮추고 대체재 확보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기업이 입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은 반도체 분야 전문외신 EET타임스(EETimes) 일본어판에 지난 10일 게재한 '한일 무역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고글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심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전자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어 심각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부터 자국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이 제품들이 포괄수출허가로 국내에 도입됐지만 앞으로는 개별수출허가로 바뀌어 각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노가미 소장은 "이러한 수출 통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



일본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유노가미 다카시(Takashi Yunogami) 미세가공연구소 소장

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본 정부를 강타하고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the Japanese government is digging its own grave)"고 강한 어조로 아베 정부를 비판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유노가미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삼성 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최신 기술인 7나노 EUV(극자외선) 공정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삼성전자의 EUV 양산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출하에도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에칭가스'로도 불리는 불화수소의 원활한 공급이 막힐 경우 한국이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DR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유노가미 소장은

"삼성전자의 서버용 SSD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에게 납품된다"면서 "만약 서버용 SSD 제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이들 클라우드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일본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기업들이 일본산 불화수소를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노가미 소장은 일본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불화수소 공급이 단기간에 일본산 제품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2년이 지나 현재의 수출규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할 경우 일본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노가미 소장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현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잃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면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신뢰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sho218@news1.kr

## 유니클로, 한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것 발언 댕새 만에 사과

일 패스트리테일링 "임원 발언 대단히 죄송"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국의 불매운동을 꺾어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유니클로가 결국 사과했다. 문제 발언이 나온지 닷새만이다.

국내에서 SPA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16일 국내 언론에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 그룹의 결산 발표 중 있었던 임원의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가 담긴 패스트리테일링 측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패스트리테일링 2018회계연도 실적 결산 설명회 자리였다. 오카자키 타케시 패스트리테일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이는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다.

패스트리테일링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전하고자 했던 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님들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며 그러한 노력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족한 표현으로 저희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니클로는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높은 가치를 가진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카자키 CFO의 발언이 알려지며 국내 유니클로 매장 곳곳에는 소비자들이 파켓을 들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hemingway@news1.kr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H MART

##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LY 19th - JULY 25th, 2019

## SILKY TOMATO TOFU SOUP

QUICK AND EASY HEARTY SOUP FOR ANY TIME OF THE DAY. CUSTOMIZE YOUR SOUP HOWEVER YOU'D LIKE!  
H마트와 함께 만드는 초간편 건강 음식~ 건강에 좋고 맛있는 고영양 저칼로리, 토마토 순두부탕을 만들어보세요!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유망한 레스토랑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세요! CONTACT: me@hmart.com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30% <b>\$4.99</b>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b>\$1.49</b>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골드키위 <b>\$20.99</b>	Mango 망고 <b>\$7.99</b>	Jack Fruit 잭 프룻 <b>\$0.99</b>
White Nectarine 화이트 넥타린 <b>\$1.99</b>	White Peach 백도 <b>\$1.99</b>	Stem Tomato 스텝 토마토 <b>\$1.29</b>	Washington Red Cherry 워싱턴 레드 체리 <b>\$2.99</b>	K TOWN Tofu 케이타운 두부 Soft/Silken/Firm 14-16oz./pkg. <b>\$0.99</b>

<b>MEAT   at unbeatable low prices</b>		<b>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b>	
Cornish Hen 냉장 영계 <b>\$2.79</b>	Beef Chuck Eye Roll Steak 목등심 스테이크 <b>\$7.99</b>	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 새우 <b>\$22.99</b>	Frozen Abalone 냉동 전복 10-12" <b>\$19.99</b>
Boneless Pork Loin 드카스용 돼지고기 <b>\$4.99</b>	Chicken Tenderloin 닭 안심 <b>\$2.99</b>	TONGTONGBAY Cooked White Clam 홍콩비 백합조개 1 lb./pkg. <b>\$2.99</b>	BANTRY BAY Mussels in a Tomato & Butter/Garlic Butter Sauce 도마토 & 버터/갈릭 버터 혼합 <b>2\$6</b>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b>\$4.99</b>	SEOUL SOONDAE, INC Fully Stuffed Sundae/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서울/알찬순대 1.5 lb./pkg. <b>\$6.99</b>	KRIMSON Swordfish/Tuna Kabab 크림슨 황새치/투나 케밥 <b>\$5.99</b>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b>\$6.99</b>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AGAWAK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기가이세 쌀 15 lbs. <b>\$19.99</b>	DR. CHUNG'S FOOD Vegemil Soy Milk 장식용 베지밀 두유 49oz./16.2oz. box <b>\$8.99</b>	THU HUNG LIME Goch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장 한미 태양초 갈고추장 6.8oz. <b>\$12.99</b>	NUNGSHIM Snack Mix 농심 스낵믹스 Assorted 25.0oz. <b>\$9.99</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b>\$9.99</b>	CJ Cooked White Rice CJ 찰떡 밥 7.4oz x 12oz./box <b>\$10.99</b>	HAO REUM Buckwheat Noodles Zaru Soba 해로음 메밀 국수 3 lbs. <b>\$3.99</b>	SHIRAK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유 참기름 36FL.oz. <b>\$9.99</b>
DANYA Soba Tsuru Sauce 다야 네일국수 소스 16.7FL.oz. <b>\$3.99</b>	SUNGYUNG FOOD Pepper Chip 성정식품 고추 부각 2.12oz. <b>2\$5</b>	HAID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 2.63 lbs. <b>\$4.99</b>	DONGWON Luncheon Meat 동원 런치미트 12oz. <b>2\$5</b>
SUNGBU FOOD Korean Style Popcorn 성부식품 참마음 향긋리 감남이 5.99oz. <b>2\$3</b>	HAI/TAI Pearls Crunch Snack 해대 맛동산 10.53oz. <b>\$2.99</b>	Nickel Silver Pot 양은 전골 냄비 22/24cm - ea. \$39.99-59.99 <b>\$4.99 \$5.29</b>	DANGSHU Laundry Soap Case 상신 비에트리 알라비누대 <b>\$1.89</b>
<b>중가집 JONGGA SURPRISE IMPORTED KIMCHI SUPER SALE</b> JULY 20TH - 21ST, 2019 AT H MART MA STORES 중가집 맛김치 특/별/할/인 35oz. <b>2\$14.99</b> KOREA'S #1 KIMCHI IS ON SALE, BUY CHONGGA'S MAT KIMCHI(35OZ.) AT A SPECIAL PRICE. 2 for \$14.99 (regular 1 for \$10.49)		CALBEE Fruita Fruit & Granola 칼베 프루그라 17oz. <b>\$6.99</b>	Waterproof Picnic Mat 방수 피크닉 매트 140 x 200cm Yellow/Blue/Red - ea. <b>\$8.99</b>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typo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8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Sun - 10pm

# 여야 모두 애도한 고 정두언...MB, 영어의 몸 아니라면

## 이명박 "만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이재오 통해 애도 이재오 "고인과의 좋았던 과거만 기억하겠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 인사 모두 고(故) 정두언 전 의원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까다로운 보석 조건으로 빈소를 찾지 못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문을 보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1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는 친이(親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방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외에도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유익동·시상욱·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경필 전 경기지사,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찾아 애도했다.

친이계 핵심 인사였던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정치평론가로 변신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측근 이재오 전 의원을 통해 조문을 전달하고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재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조문을 통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다면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와 조문에 대해 상의했다. 보석 조건이 까다롭다. 재판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그래서 못하게 됐다"며 "감옥 가시기 전에도 평소 정

전 의원을 한번 만나야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 예이다. 고인이 못다 한 말이나 생각이 있어도 고인이 되면 없어진다. 저를 비롯해서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평소 좋았던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며 "함께 일했던 것, 서로 힘을 모아 대선을 치른 것, 그런 점을 기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통화했다. 우리끼리 전화도 하고 지낸다. 이렇게 갑자기 고인이 될 줄은 (몰랐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울먹였다.

유승민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고인이 혼자서 감당했을 괴로움이나 절망을 생각하면 제가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가슴이 아프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세상에서 편하게 쉬시길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바란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같이 대학을 다닌 선후배다. 서로 가깝게 잘 지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할 나이고, 시점인데 이렇게 돼 슬프다"며 "(정 전 의원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박주선 의원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고 했

는데 안타깝다. 바른 사람인데"라며 애도했다.

이종걸 의원은 "같이 정치를 해본 적이 있다. 배려하는 생각, 그리고 깔끔하고 기분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무언가를 갖고 계신 분이셨다"며 "정치가 아니더라도 서로 얘기하고 통할 수 있는 분이셨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asd123@news1.kr

## 패스트트랙 줄소환 시작되자...공수 뒤바뀐 여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몸싸움과 관련한 무더기 고발 이후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공수가 뒤바뀌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판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처했던 민주당은 최근 강경기류로 돌아섰다.

반면 경제토론회와 북한·북선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해온 한국당은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수세에 몰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두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뒤 석달째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유지해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공을 들여온 것에 비하면 달라진 태도다.

이는 지난 4월 빚어진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태 이후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와의 맞물려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대당 의원과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맞고발한 상태다. 고발당한 현역 의원만 109명이다.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당 소속 의원(110명)의 절반을 넘는다.

민주당도 고발된 의원이 40명에 달한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폭행 혐의를 받는데 비해 한국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센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이 정치판을 요동치게 할 악재로 떠오른 이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권이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고발건을 총선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소환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하다면 나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밝히면 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사태와 관련한 경찰

소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제 불법행위가 덮여지거나 시간끌기로 면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오는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경안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도 민주당 내에선 '방탄국회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정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는 명분을 얻은 뒤, 일부터 7월 임시국회 개최를 유도해 고소·고발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회기중 수사를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실제 민주당이 오는 19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이후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임시국회를 다시 급소집해야 한다.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더해 정부의 추경안을 수정 제안해 달라며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sekim@news1.kr

## 홍영표 정개특위원장 내정 오늘이라도 간사 만나 협의

### 선거법, 여야 합의 도출이 가장 바람직 패트 관련 검찰 수사 시작되면 제일 먼저 나가겠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도 여야 간 사들을 만나 다음주부터 정개특위원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18일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 직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주 중에는 정개특위 일정을 잡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국을 격랑 속으로 밀어넣은 패스트트랙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실 정개 특위가 참 많은 진통이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선거법 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잘 아실 것"이라며 "기준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제출돼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도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앞서 미소짓고 있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라도 정개특위를 빨리 가동시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고사했던 이유에 대해선 "원내대표를 마치고 나서 건강도 안 좋았고 패스트트랙 진통이 있었으니 다른 분이 맡았으면 했다"면서 "당에서 그간의 과정을 잘 아는 제가 합의 도출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 의결을 두고 데드라인을 못박진 않았다. 다시 지난 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seeit@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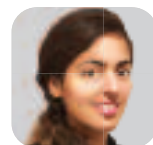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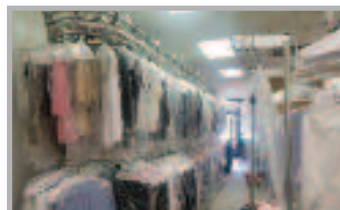
Asking \$1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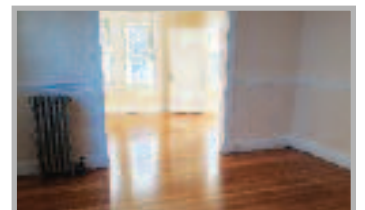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3 Beds & 1 Bath, 새로 레노베이션된 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 인접, 8월15일부터 입주 가능

Asking \$24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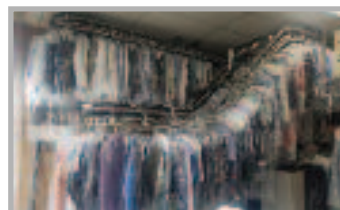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David's Catholic Parish of Boston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성당 야드세일  
 6월 1일 (토) 9시-2시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 소자본 투자, 고소득 가능

총 투자금 \$70,000~\$150,000으로 가능합니다.

## 짧은 영업시간, 고소득 창출



북미 넘버 원 안마의자 공급업체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OTA Healthmate - 가맹점  
designed by **Osaki** **Titan**



Buena Park / LA store

**본사  
책임**



**배송**

전 미국 7일 안



**서비스**

24/7



**워런티**

기본 3년, 5년



북미 NO.1 브랜드

**OTA Healthmate**

**1-888-848-2630**  
[www.otahealthmate.com](http://www.otahealthmate.com)  
[www.titanchair.com](http://www.titanchair.com)

창업 문의: David Cho  
**469-271-3368**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GALLBLADDER CANCER

# 담낭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통계에 대해 알아본다. 2016년 기준, 암 확진 후 치료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수는 약 174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이다. 남자(79세)는 5명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중 1명(33.3%)이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2016년도 주요 암 발생자수 남자 7위(3,400명)와 여자 9위(3,195명)인 담낭암 및 기타 담도암에서 담낭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담낭암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암입니다. 따라서 진단 당시에 이미 전신 전이 등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보편화되면서 담낭절제술 후 우연히 발견되는 조기 담낭암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복부 초음파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담낭암 진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위험인자

담낭암 발생에 있어서 담석과 용종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들로 생각됩니다. 특히 3cm 이상의 큰 담석, 크기와 상관없이 장기간 보유한 담석, 도제 담낭, 담석과 동반된 체담관협착이상, 만성

장티푸스 보균자인 경우, 1cm 이상의 용종인 경우에 예방적 담낭절제술이 필요합니다.

◎ 진단

복부 초음파검사는 담낭 질환이 의심될 경우 선별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로, 담낭암의 형태학적 진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산화단층촬영(CT)은 초음파검사보다 담낭 자체를 관찰하기에는 덜 예민할 수 있으나 주변 장기 침습 정도 및 림프절 전이 여부, 타 장기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수술 범위를 결정하고 병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담낭암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검사와 전산화단층촬영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검사입니다.

◎ 치료

담낭암은 현재까지 완전한 외과적 절제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의 범위는 담낭암의 담낭벽 침습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기 담낭암의 경우 담낭만을 절제하

는 담낭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으며 조기 담낭암을 제외한 담낭암의 경우 담낭과 담관이 붙어있는 간(담낭와)에 대한 췌기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이 시행됩니다. 드물게는 주변 장기(담도, 위, 십이지장, 대장 등)의 동반 절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담낭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진행이 많이 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절제율이 25~30%에 머물고, 완전한 절제 수술 후에도 반 이상의 환자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항암약물요법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보조치료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담낭암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암이기 때문에 담낭암만을 대상으로 한 항암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 예방

담낭암의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담낭암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으로 생각되는 담석과 담낭 용종을 가진 분들은 전문의 상담 및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담낭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 금주의 LISTINGS



**Quincy condominium.**  
644 Sq, 1bed, 1bath. 1985 built, condo fee \$330. 투자용으로도 좋은 위치. North Quincy "T" station, Marina bay 걸어서 다닐 수 있음. 수영장 있음

**ASKING \$27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상.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

**ASKING \$19,95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

**ASKING \$99,000**



**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Cash \$90,000, owner finance \$ 30,000

**ASKING \$120,000**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70,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 '검블유', 관전포인트 셋 #임수정 로맨스 #이재욱 실검 #전혜진 결단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쫄쫄한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 그리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활약으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는 tvN 수목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극본 권도은/연출 정지현, 권영일/이하 '검블유'). 지난 방송에서는 포털 업계 걸크러시 3인방의 일과 사랑에 위기가 더해지면서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둔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쏠아지고 있다. 이에 한 주간 시청자들을 애타게 만들었던 세 가지 궁금증을 짚어봤다. 임수정의 충격 엔딩, 로맨스 적신호 켜졌다. 지난 12회 엔딩에서 타미(임수정 분)는 다인(한지완 분)의 피아노 독주회의 관객석에 앉은 모건(장기용 분)

을 발견했다. 충격을 받았음이 여실히 드러난 타미의 표정을 보아, 얼마 전 "오랜만에 첫사랑을 만났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던 다인이 언급했던 상대가 모건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터.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지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애정 전선에 먹구름이 낀 타미와 모건에게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이 얽친 데 덮친 격이다. 밤에서 낮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스며든 이들 커플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악역 조연배우 이재욱, 실검에 등장한 이유는.

흔한 외모,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긴 무명기간을 보냈던 막장드라마의 악역 조연배우 설지환(이재욱 분). 영화 같은 만남 이후 첫 번째 팬을 자처했던 차현(이다희 분)의 도움은 지환을 촉망받는 젊은 배우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도 뜨지 않았던 지환에게 소속사까지 생겨 드디어 탄탄대로를 걸을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이 가운데 13회 예고 영상에는 갑자기 지환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시선을 끈다. '장모님은 왜 그럴까?'의 인기에서 비롯된 것일지, 혹은 지난 방송으로



미루어 보아 실검에 등장할 만큼 자극적인 사고가 타진 것을 아닐지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는바, 그 속사정에 호기심이 증폭된다.

은밀하게 피어오르는 포털 위기, 전혜진의 결단.

포털 업계에도 전에 없던 위기가 감지된다. KU 장회장(예수정 분)이 유니콘의 대표와 바로의 부사장에게 "포털의 전기세 비용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줄여줄 테니 실검을 정권의 뜻대로 규제하라"라는 정부의 은밀한 제안을 전달할 것. 그런데 가경은 유니콘으로부터 정직을 당한 상태고, 브

라이언(권해효 분)은 바로 대표직에 사임을 공표한 상황이라 시청자들의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유니콘과 바로가 검색어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느껴졌기 때문. 이에 걸크러시 3인방 중 포털 위기를 가장 먼저 깨달은 가경의 행보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 진우(지승현 분)와의 이혼을 선언, 'KU의 며느리' 자리를 포기하고 자아를 찾겠다고 결심한 가경이 과연 어떤 결단과 활약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seunga@news1.kr



7월 14일 - 7월 20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b></p> <p>●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b>소띠   시아가 환해지면서</b></p> <p>●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기본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아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4, 19일 길일, 18, 20일 주의.</p>	<p><b>범띠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b></p> <p>● 운수: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씹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고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토끼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b></p> <p>●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8일 길일, 14, 20일 주의.</p>	<p><b>용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b></p> <p>●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6일 길일, 15, 17일 주의.</p>	<p><b>뱀띠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b></p> <p>●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20일 길일, 14, 16일 주의.</p>
<p><b>말띠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b></p> <p>●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동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쳐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b>양띠   행운이 함께 하고</b></p> <p>●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원숭이띠   부지런히 노력해야</b></p> <p>●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고도 있고 있다기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b>닭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b></p> <p>●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분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b>개띠   활기를 찾게 되는</b></p> <p>●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b>돼지띠   집고 넘어가야</b></p> <p>●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집고 넘어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ttapan SQ., MA 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603-401-4986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메이над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블랙핑크, 첫 월드투어 마침표... 감동의 눈물 "고마워"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앙코르 콘서트를 끝으로 기나긴 데뷔 첫 월드투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블랙핑크는 지난 12일 오후 8시(이하 현지 시각) 및 13일과 14일 오후 6시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BLACKPINK 2019 WORLD TOUR [IN YOUR AREA] BANGKOK: ENCORE' 를 열고 다시 한번 현지 팬들을 만났다.

블랙핑크는 6개월 전 같은 곳에서 데뷔 첫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현지 팬들의 높은 성원에 힘입어 총 3회로 구성됐으며, 전석 매진되며 3만여 명의 관객과 만났다. 월드투어의 첫 시작을 알린 장소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은 리사의 고향인 태국 방콕이기도 한 만큼 여느

때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가 콘서트 현장을 가득 메웠다. 공연 시작 전부터 커다란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현지 팬들은 전곡 때까지 블랙핑크의 재방문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매회 현지 팬들이 준비한 깜짝 배너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팬들은 1회차 공연에서 일제히 'MY AREA IS ALWAYS FOR YOU'라고 적힌 배너를 펼쳐 보이며 블랙핑크를 감동시켰다. 2회차 공연에서는 '가끔 어둠이 올 때면 I WILL BE YOUR FIRE'라는 문구의 배너를, 마지막 공연에서는 '여전히 이곳에서 널 응원할게'라고 적힌 한국어 배너를 손수 준비하며 블랙핑크를 향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 기간 동안 서울, 방콕,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해밀턴, 뉴욕, 애틀랜타



, 포트워스, 암스테르담, 맨체스터, 런던, 베를린, 파리, 바르셀로나, 마카오, 멜버른, 시드니 등 4대륙에 걸쳐 23개 도시의 팬들을 직접 찾았다.

마지막 3회차 공연에서 멤버들은 지난 6개월간의 월드투어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기쁨에 겨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멤버들은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하신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외

치며 투어 동안 함께한 스태프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방콕을 끝으로 블랙핑크는 약 6개월간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4대륙 총 23개 도시를 순회하며 32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세를 이어 올해 12월 도쿄 돔, 내년 1월 오사카 교세라 돔, 2월 후쿠오카 야후 오쿠돔에서 일본 3개 도시 4회 돔 투어를 개최한다.

hmh1@news1.kr

# '엑소 유닛' 세훈&찬열, 신곡 '있어 희미하게'로 청량 에너지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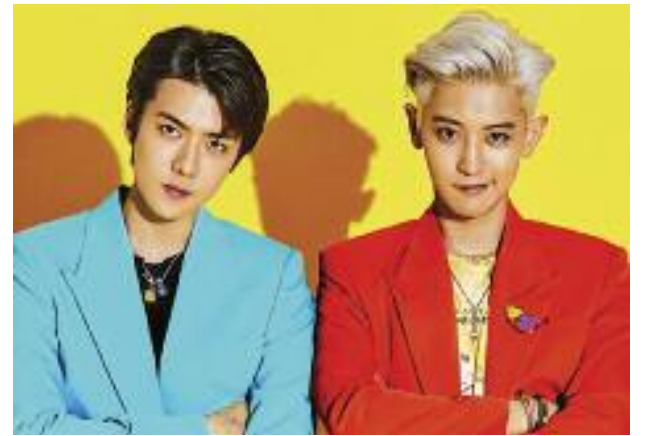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트리플 타이틀곡을 예고한 엑소의 새로운 유닛, 세훈&찬열(EXO-SC)이 두 번째 타이틀곡 '있어 희미하게'로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한 음악을 선사한다.

오는 22일 발매되는 세훈&찬열의 첫 번째 미니앨범 'What a life' (왓 어 라이프)는 트리플 타이틀곡 'What a life', '있어 희미하게', '부르면 돼'를 비롯해 다양한 분위기의

의 힙합 장르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어 글로벌 음악 팬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특히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있어 희미하게'는 중독성 있는 피아노 테마와 청량감이 느껴지는 신시사이저, 시원한 멜로디가 특징인 힙합 곡으로, 가사에는 무더운 여름 휴가지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내 곡의 매력을 배가시켰다.

breeze52@news1.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0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국제선(시스코 지부) 초청 <보스톤한미노인회> 바닷가 나들이를 다녀와서...

엣그제(7월 13일/토)는 국제선(시스코 지부)의 초청으로 <보스톤한미노인회> 어른들과 상록회 어른들 그 외의 50여 명이 뉴햄프셔주 소재 New Castle 바닷가 나들이를 다녀왔다. 뉴잉글랜드 국제선 지부(회장:유정애)가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보스톤 지부>, <뉴햄프셔 지부>, <시스코 지부>로 나뉘었다고 한다. 해마다 7월 이맘때면 <시스코 지부>에서 <보스톤한미노인회>, <상록회> 어른들을 초청해 자연과 바닷가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푸짐한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국제선 <시스코 지부> 유정애 회장은 국제선 연합회 회장도 역임했으며 지금은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평화의 집(김민지 목사)' 건축을 담당하여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을 맡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시스코 지부> 회원들 1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 맛난 음식을 준비하고 어른들께 봉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이었다. 이렇듯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에 큰 박수와 응원을 드리고 싶다. 미국 이민자들의 생활은 서로 말

하지 않더라도 알지 않던가.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Mission) :국제선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화 충격과 언어 차이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여성들은 물론 노인,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체이다. 세인 루이스에서 '평화의 땅, 평화의 집 쉼터(김민지 목사)'가 있어 가정적인 어려움과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돕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제결혼가정의 여성들이 찾았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의 한국 여성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이다.

한 2년 전에 '평화의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김민지 목사님을 보스톤에서 뵈게 되었다. '평화의 땅'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며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가슴이 아리고 저러온다. 곁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는 이들이 모두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었다. 지금에야 이렇듯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40, 50여 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기억하며 미국 남편과 미국 가족들에 대한 소외보다도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한국인이 더 힘들고 버거웠다고 말씀하신다. 국제결혼가정이라는 말보다도 '국제결혼 한 여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아픔이 많았었다고 말이다.

국제선 회원들의 활동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회원들도 국제결혼가정뿐만이 아닌 일반가정의 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문제가 되는 가정의 폭력이나 청소년 문제 그 외의 마약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꾸준한 기도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도 나누고 있다. 현대를 사는 지금의 시대는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서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강박처럼 되어지고 있지 않은가. 삶 가운데서 나와 내가 죽어 아닌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또 얼마.

7월의 날씨가 무덥긴 했지만, 하늘은 파랗고 솔솔 흐르는 바람에 뭉게구름 넘실거리는 풍경은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도 기분 좋은 일

이다. 거기에 바닷가의 이끼 내음 바람에 넘나 들고 여기저기 여름을 즐기는 이들의 웃음꽃이 가득한 차림새의 사람이 바로 풍경이지 않던가. 그곳에 <보스톤한미노인회>, <상록회> 어른들과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자연과 함께 풍경이 되어 준 것이다. 자연 속에 사람이 풍경이 되고, 사람 속에 자연이 풍경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였다. 활짝 웃는 어른들의 행복한 웃음이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다.

어른들과 함께한 시간에 더욱더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른들과 함께 웃는 그 시간에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걸어오신 어른들께 배우고 또 배우는 까닭이다. 삶의 고비마다 '삶의 지혜'를 엮어오신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이렇듯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어른들 모임에 참여해 조용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보면 그저 보는 내가 더욱더 행복하다. 해마다 7월이면 어른들 바닷가 나들이를 초청해주는 국제선(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Mission) <시스코 지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과거科擧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화이다. 오용길화백의 작품이다. 그림엔 인왕산과 경복궁이 보인다. 인왕산 암벽은 듩직하고, 경복궁 앞전殿도 넓다. 아니나 다를까, 작품이 청와대에 걸렸더라. 지난달 트럼프대통령이 방문록에 서명할 적에 뒤편에서 얼핏보였다. 작품은 사진보다 훨씬 그윽하다.

경복궁 정전 앞 시험장이라 했다. 200여명이 모여 과거科擧 시험을 치루는 거다. 삼년에 한번의 기회인데, 본 시험은 눈술형이다. 경쟁률 또한 장난이 아니다. 예비고사인 초시엔 6~7만여명이 응시했고, 200여명

만 일차관문을 통과할 수있었다. 이어 최종합격자는 33인이라 했다. 한편, 순위를 결정하는 시험관문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석차에 의해 직급이 결정된다는 거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이라 했다. 43만자 라고도 했다. 순 한자인데, 모두 외우고 뜻을 이해할 수있어야 했다. 어느 구절을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명종임금 때라 했다. 과거시험 문제다. '하늘의 변화가 어떤 이치에 따르는지 논하라.' 당시 장원급제자는 율곡이이李珥이며, 그의 답안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

이니,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하늘의 뜻도 바르게 된다.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로 잡으면 하늘의 기운도 바르게 될것이다.' 역시 율곡은 공부의 신이고, 시험의 황제라 할 수있겠다. 과거시험 9번을 치뤄 모두 일등으로 합격했다 했으니 말이다.

광해군 적에 과거 시험문제도 눈에 띄었다. 왕이 직접 출제 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2등을 한 답안이라 했다. '사람이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세월이 사람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안타까운데, 답안만 현명하고 깔끔하다.

한국대통령도 사법고시출신이다. 판검사를 뽑는 시험말이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날 가장 기뻐했다고 했다.

그런 한국대통령 임기도 몇년 남지 않았다. 대통령도 세월이 가는 걸 안타까워 하는 건 아닐까. 많은 일들이 세월만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조임금때 였다. 임금이 율곡선생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하는가. 율곡의 대답이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되도

록 피하십시오. 대신 자기 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이 이어진다. '전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전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전하를 결코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역시 명재상이고, 현명한 대답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도 사법시험 출신이다. 늦각이 합격이라고도 했다. 부디 자기일에 충성을 다하는 검찰총장이 되길 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한 7.15)



# 명가보약

The Secrets of Nature

## 왜 명가보약일까?

“이제 정식 허가를 받은 곳,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받으세요!”

- 최상의 서비스
- 경제력 있는 가격
- 양질의 제품

“천왕보심단/경옥단/연령고본다, 미주 한의원들에 절찬리 판매중”

## ‘보약중의 보약’ 황제의 명약, 공진단 (拱辰丹)

황실에 바쳐진 명약으로 <황제의 명품 보약>으로 불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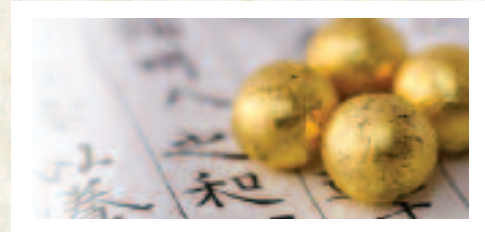
### 보약중의 보약, 황제의 명약 공진단

저희 명가보약에서는 공진단을 직접 원방으로 조제하여 진귀한 약제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까다로운 수취법제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여 조제합니다. 당연히 그 처방의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받으시는 분의 품격을 높여 드리도록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관련 상품을 준비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경옥단

저희 명가보약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원방 경옥고의 단점을 보완하여 경옥단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이 반이라고 하는 경옥단은 만드는 이의 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삼, 꿀, 생지황, 복령 등 주재료 외에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자연한방 경옥단은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심장을 보해주는 최고의 한약 천왕보심단

미국 실정상 금지 약물이 포함된 우황청심환을 대체할 최고의 명약입니다. 심장의 열을 끄고 원기회복과 심신 안정에 좋아 갑상선 항진증, 갱년기 증상, 불면증, 수험생 및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하는 환자,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두근거림, 신경쇠약 등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왕보심단, 이제 명가보약을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 두말할 필요 없는 회춘의 묘약 연령고본단

연령고본단은 만병회춘의 처방입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성인이 장기 복용하는 약으로 오래 먹으면 신선처럼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연령고본단은 신장과 정기를 보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전신 권태, 신경 쇠약, 식욕부진, 손발이 찻 때, 중년 이후의 성기능 장애 등에 큰 도움이 되며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 명가보약이 엄선한 약재로 자신 있게 처방할 수 있는 신제품 '환'

### 지친 몸에 생기 주는 쌍화환

'쌍화환'은 기와 혈을 쌍으로 조화롭게 해준다는 의미로, 음양의 부조화로 육체가 쇠약하고 피곤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면역력과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피로 회복, 골다공증 개선, 항염증 효과, 진통 및 항경련 효과, 성호르몬 분비 증가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을 보하는 좋은 처방입니다.

### 더운 여름에 '딱' 좋은 청서익기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기와 진액을 생성하는 기능에 차질이 생겨 지치고 갈증이 납니다. 또한 비의 기능이 떨어져 수습이 발생, 습열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청서익기환은 기와 진액 보충해주고 위로 끌어올려주며 하초의 습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 여름 더위 전에 미리 상비해둬야 할 약입니다.



공진단 전문점  
BOSTON점

TEL : 617.868.3232  
EMAIL : NaturalHerbAcu@gmail.co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24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74 Elm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 '타나토스(Thanatos), 에로스(Eros) 그것이 문제로다'

요 며칠 9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보스톤의 여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을 보상이라도 받을 듯, 태양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보스톤의 여름은 무척 짧아 8월 말이 되면 벌써 선선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하며 가을의 향내를 슬쩍 흘린다. 그러다가 살갓으로 전해지는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겨울이 시작된다. 4계절의 변화는 생의 여정과 많은 비슷한 면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순환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생의 과정을 겪게 된다. 크게 나누어 여름은 생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20대 30대 중반의 '청소년기와 성인기'라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말한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생의 본능과 죽음 본능이 존재하여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이 두가지 본능이 계속 반복되며 생을 느끼고 죽음을 느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쾌한 아침과 짜증나는 아침을 맞이한다고 상상해보자. 숙면을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하다. 이러한 아침에는 죽음 본능보다 생의 본능이 훨씬 강하여 일어나면서 하루의 시작부터 신나진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잠을 설쳤다고 하자. 아침부터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하러 갈 생각만 해도 일어나기가 싫다. 하루의 시작이 생의 본능보다 죽음 본능이 앞서면서 하루를 지내기가 힘이 든다.

프로이드는 죽음 본능을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 타나토스(Thanatos)를 따라 명명했고, 생의 본능은 연정과 성애의 신 에로스(Eros)를 따라 명명했다. 타나토스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히пно스(Hypnos) 잠의 신이다. 우리가 매일 같이 취하는 '잠'은 다음 날의 생의 본능을 만들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잠을 통해 하루의 삶 속에 쌓여있던 기분 나빴던 기억이 주는 스트레스, 기쁜 일로 벅차 오르는 흥분, 미움, 사랑 등의 감정의 찌꺼기(죽음본능)를 잘 걸러내면 다음 날을 살아가는 생의 본능을 재 충전 시키고 재 활성화 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성장을 겪어가면서 죽음본능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면, 새로운 시도가 주는 두려움, 실패가 주는 좌절감, 수치감, 분노 등의 감정은 죽음 본능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크게 일을 벌이면 죽음본능과 생의 본능이 크게 작동하고, 꾸준히 조용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죽음본능과 생의 본능이 잔잔하게 순환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말 할 수는 없다. 개인의 성격, 성품, 도전력, 야망에 따라 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죽음본능

과 생의 본능이 조화를 갖는다면 생이 재미나진다는 것이다.

죽음본능이 생의 본능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살아가는 일이 재미가 없어진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사멸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안에 가득하여 미움과 분노의 독으로 점점 자신의 생의 본능이 고갈되어간다. 그러면서, 죽음본능이 점점 커지면서 섭식장애, 우울증, 불안증, 신체 자해, 약물중독, 게으름, 지나친 자기희생, 사이코소매틱(psychosomatic) 등의 방어가 시작된다. 그러다보면, 옆에 있던 친구마저 멀어지고 만다. 생의 활기가 아닌 죽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을 밀쳐내는 사람들이 무어라 욕을 해도 그들에게 화를 내고, 투사하고, 핑계를 대고, 싸움을 한다면 생의 본능은 다시 충전 될 수 있다. 남의 마음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화를 풀어내기 때문이다. 물론,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자신에게 쌓여가는 죽음본능을 풀지 못하고 자신 안에 쌓아가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리 유명세를 타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연기하며 믿음 주던 배우 '전미선'의 충격적인 소식을 보았다. 몇 주후 개봉되는 영화 '나랏말싸미'와 '친정엄마와 2박'이라는 연극 공연을 앞에 두고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터라, 왜 그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고인 전미선씨의 자살은 작년 6월 잘 나가던 패션 디자이너이자 사업가인 케이트 스페이드의 자살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케이트 스페이드도 자살하기 몇 달전 NPR과의 인터뷰에서 '좀 더 깔끔하고 모던하고 심플한 가방이 없었지를 고민했다'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생의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고인은 1996년 뉴욕에 1호 지점을 낸 뒤, 전 세계 300개가 넘는 점포를 거느리게 됐다. 본인의 성이기도 한 '스페이드' 문양이 들어간 독특한 로고와 형형색색 밝은 패턴의 디자인이 제품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러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 브랜드를 2007년 매각했는데 2017년에는 라이벌 브랜드인 코치가 24억 달러에 구입해 화제를 모았다. 두번째 비슷한 점은 전미선 배우와 케이트 스페이드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둘다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지인들에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인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은 이는 하나도 없었다. 겉으로 너무나 완벽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죽음의 극단적인 기로에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2014년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11학년이었던 로이 그렛만의 자살소식을 접하면서였다. 학교 클래스 오피서로 활동하며 학업이나 교외활동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던 로이였기에 그의 자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죽기 전, 그는 자신의 여동생과 문 싸움을 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틀전 여러가지 시사프로에 출연하며 자신의 생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던 정 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자살 또한 충격을 주고있다. 정의원도 전미선 배우, 케이트 스페이드, 로이 그렛의 자살의 형태와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지난 달, 함해욱 교수는 160명의 많은 참여자가 참석한 강연에서 청소년과 성년기 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주는 강박관념을 말하였다. 필자는 함 교수의 의견에 절대적인 동의를 표현하고 싶다. 이들 세 사례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이는 완벽에 가까운 그들의 삶의 형태였다. 겉으로 의연하고 행복해 보이니까 한 그들이 차리리 한번이라도 속 시원히 화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완벽성을 무시했다면 자신의 고통을 어떠한 형태로 건 표출을 하였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세 사례는 자신의 죽음 본능을 남에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이고 스란히 자신에게 되돌려 마음 안에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파괴적인 충동(죽음 본능)을 자기에게로 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이들일지라도, 자신의 자살 충동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 누구도 어떠한 형태로 자살 충동을 이야기 했을 때 절대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완벽한 사람일수록 의식수준이 높고 자율성이 강하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감정을 섞어 표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자살충동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증거이다. 생의 본능이 그만큼 강하기에 죽음 본능도 그만큼 강하다. 겉으로 드러난 성공으로 할켜진 그들의 영혼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자살의 적은 '방치'이다. 우울증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마치 우울증이 결함인 양 취급하지 말자. 나락에 빠져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충동은 방지할 수 있다.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우울증을 표현하고 있다면 방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의 치료가 절실함을 격려해주기를 부탁한다.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매사추세츠 한인회 주최  
제 74주년 8.15 광복절 기념  
한인 페스티벌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 8.10 (Sat) 9AM

장소

ARSENAL PARK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프로그램

체육대회 / 점심제공

구기종목, 가족게임, 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물풍선게임

문의 : 한인회 사무총장 박찬모 213-364-0577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ipaik@ownnewengland.com

# Investment Propertie

난부동산을 올해로 26년째 하고 있다. 난 1.5세대. 정확히 말하면 1.6세가 맞는 말일 것이다. 지난 26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다. Real Estate Market이 안 좋았다가 10년이 호황이었다. 그리고는 서브프라임이 왔고 다시 지난 7년동안 마켓은 너무 좋았다.

마켓이 좋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었다. 경제가 좋았다던지 이자율이 낮았다는지 등이다.

여기는 한인들을 위한 Newspaper이니 한인들에 trend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다

한인들은 대부분 학교 때문에 오신 분들은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얻자마자 집을 사신다. 그리고 몇년 후에는 꼭 투자(investment properties) 물건을 찾으신다.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사시고 2년 정도 되시면 집을 사신다. 그리고는 투자물건을 사신다.

이민 역사가 좀 되니 대부분 먹고 사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 Investment Properties를 찾으시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형편이다.

물가가 항상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두신 분들은 부자가 되어 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요즘 CAP이 얼마 정도 되나요? CAP이란 투자한 액수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을 이야기 한다.

대도시로 갈수록 이 넘버는 낮아진다. 현재 New York 이나 Southern California는 3%에서 4% 정도 보면 되고 Boston은 약 4%에서 5%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럼 지금 투자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Massachusetts 안에 좋은 투자 물건이 있는테를 소개 하고자 한다.

City of Worcester 이다.

Worcester는 보스턴 다음으로 Massachusetts에서 큰 도시이다.

보스턴 처럼 학교가 많고 오래 된 도시이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School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아 식당이 많다. 요즘 보스턴에서 Worcester가는 train이 생겨서 보스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Worcester에 사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Boston Red Sox Minor

League 경기장이 Worcester에 지어진 다.

학교가 많아서 보스턴처럼 Rental이 많다.

지난 5년동안 미국내에서 Worcester는 제일 많이 Property value가 올라간 도시에 든다.

내가 괴부로 느껴질 정도로 Worcester에 성장을 볼수 있었던 지난 5년이였다.

그만큼 좋은 매물이 나오면 아직까지도 Over Asking로 매매 되는 곳이 이곳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위에서 말 했지만 많은 조건들을 봤을 때 Worcester는 Massachusetts 안에서 #1 Investment 도시 가 될것 같다.

현재 CAP은 5% 에서 6% 로 보면 된다.

하지만 Boston에서 50마일 정도 드라이브 해야하므로 관리를 본인이 하실 분들은 가만해야 한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100% 맞는 건 없다 하지만 City of Worcester야말로 핫한 곳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83 화랑세기花郎世紀, 12세 풍월주風月主 보리공菩利公(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태종의 어머니이자 아진종의 부인 보옥공주는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졌다. 화랑세기에 보옥공주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탈자가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만일 보옥이

박씨라면 삼국유사의 기록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당시 왕족의 인맥(脈)은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에서 제공하였는데, 자식들은 어머니와 같은 인통을 보유하였기에 성도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태종은 지소태후(진흥왕의 모후)와 함께 세종전군과 숙명공주를 낳았다. 태종의 아들 세종은 미실과 혼인하여 하종과 옥종을 낳았다. 태종의 딸 숙명은 동복이부의 오라비인 진흥왕과 정숙태자를 낳은 뒤 이화랑과 결혼하여 아들 원광법사와 보리공을 낳았으며, 딸 화명과 옥명을 낳았다. 보리가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증조부이며, 화명과 옥명은 진평왕의 후궁이 되었다. 후대들은 차기 풍월주편에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신라의 대영웅 이사부의 업적을 간략하게 보면, 그는 505년(지증왕6년) 실직주의 군주軍主가 되었다.173) 그리고 512년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삼국유사에는 우산국을 정벌하였기에 하슬라주 군주가 되었다).174)

이사부는 529년 부터 다다라를 기지로 삼아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가야(안라국), 왜군, 백제

군을 공격하여 패퇴시키며 남야야 세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와중에서 금관가야국의 구형왕이532년(법흥왕19년)에 신라에 투항하였다. 진흥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541년에는 병부령이 되었다. 545년에는 국사 편찬을 건의하였고, 550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놓고 싸우다가 지친 틈을 타고 공격하여 두성을 모조리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이사부는 과진찬 두미묘彌, 아찬 비차부比次夫, 김무력 장군 등과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 유역의 일대를 점령하면서 신라의 영토를 확장시켰다(단양 신라 적성비). 이 때의 전투에는 많은 화랑도들이 참전했음에 6세 풍월주 세종편과 8세 풍월주 문노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561년(삼국사기에는 56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본기 제4권 진흥왕 23년) 9월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은 이사부를 대장군에 임명하여 정벌을 명하였고, 5세 풍월주 사다함이 귀당부장으로 참전하여 진압하고 가야세력을 모두 신라로 복속시켰다.

숙명공주는 아버지 이사부를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다시 없는 대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조카인 하종에게 그를 받들어 신神으로 삼기를 권유하였다. 여기에는 하종의 어머니 미실이 호신으로 삼고있는 아시공과 옥진공주를 따르지 말고 하종의 아버지 세종을 따르라는 분부도 함께 있었다. 숙명은 동생 세종과 조카 하종은 좋아하

였지만 세종의 부인 미실은 좋아하지 않았다.

173) 봄 2월 왕이 친히 나라안의 주, 군, 현을 정하였다.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다. 군주라는 이름은 여기서 시작되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권 지증마립간6년).

174) 삼국사기 지증마립간 13년(512년)에 보면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의 계략이 자세하게 나온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6월 우산국이 귀순하여 조공하였다. 명주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울릉도라고도 하며 사방 1백리의 험준한 지형을 밧고 항복을 하지 않았다. 이찬(2등급)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었을때, 우산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우므로 위엄으로 오게 만들기는 어렵고 계략으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도착했다. 이사부는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당장 맹수를 풀어 밧아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여 우산국 사람들이 겁을 먹고 즉시 항복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태종恭宗 이사부는 화랑세기에 대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가계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이사부 열전)에는 내물왕의 4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박(박이종)씨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왕족들은 성씨를 구분하지 않다가 훗날 소급해서 칭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사부 뿐만 아니라 박제상(김제상)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성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중국사서에는 우리나라의 고대 왕과 왕족들의 성이 거의 모두 정확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화랑세기에는 태종의 가계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태종의 부모는 아진종과 보옥공주이다. 아진종은 지증왕의 동생이며 습보갈문왕의 아들이다. 습보의 아버지는 복호이고, 복호의 아버지가 제17대 내물왕이다. 그래서 태종이 내물왕의 4세손 기록은 삼국사기와 일치한다.

지증이 예순이 넘는 나이에 소지왕을 이어서(기록은 정확하게 없는데 정황상 정변으로 폐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소지왕의 장례식때 아진종이 수장되었다. 그리고

보스톤코리아

# 보스톤 한인업소록



##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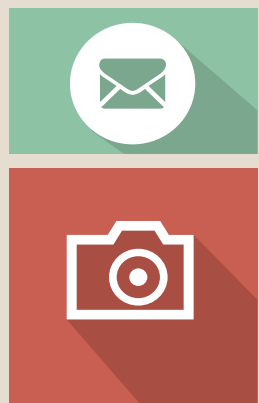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mailto: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렉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런드로멧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 마음대로 골라본다

# \$24<sup>99</sup>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KBS MBC SBS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전상품 무약정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